

---

# Ⅲ

# 조발도

---





여수시  
변천사

## Ⅲ. 조발도

###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 가. 사회 지리적 배경

##### 1) 주요 선착장간 거리

조발도선착장에서 백야도 백야항까지는 직선거리는 7.77km이고, 화양면의 벌가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는 2.1km이다.



조발도 선착장과 부잔교





조발마을 전경 (2008)



조발마을 전경

## 2) 인구현황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25세대 39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남자가 18명, 여자 21명이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적은 편이다.

인구 현황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18	27	16	11



### 3) 토지현황

조발도의 해안선 길이는 7.8km이고, 총면적은 1.052km<sup>2</sup>이다. 전답은 0.245km<sup>2</sup>이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면적은 이보다 적다. 임야 0.781km<sup>2</sup>, 대지 0.014km<sup>2</sup>, 기타 0.012km<sup>2</sup>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현황 (km<sup>2</sup>)

면적	전답	임야	대지	기타	해안선
1.052	0.245	0.781	0.014	0.012	7.8km



### 4) 공공기관

조발도는 섬이 작고, 인구가 적어 리사무소 이외에 특별한 공공기관은 없다.

리사무소

## 5) 교육기관

1948년 3월 1일 낭도국민학교 조발분교장이 개교하였으며, 1996년 2월 8일 낭도초등학교 조발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교육기관은 없다.



조발분교 정문



조발분교

## 6) 사회조직

### (1) 사회조직

조발도의 사회조직 역시 둔병도와 마찬가지로 조발개발위원회, 조발노인회, 조발부녀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고연령이어서 단체 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다.

### (2) 어촌계

조발도 어촌계의 정식 명칭은 조발어촌계로 1962년에 최초 설립되었다. 어촌계 설립 후 1970~80년도에 최대 36명까지 계원수가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명이 등록되어 있다. 어촌계 공동어장에서는 툇, 미역 등의 해조류와 전복, 바지락, 성게, 해삼, 새꼬막, 키조개, 피조개, 바지락 등이 주로 생산된다. 어촌계원 각각의 어업은 낭장망과 소규모 어선을 이용한 낚시, 주낙 및 통발 등이 이루어지며, 주 생산 어종은 썸뱅이, 농어 등이다. 조발어촌계에 소속된 섬은 치도, 흥도, 토도 등이 있다.



마을회관



어촌계 건물



## 나. 지형

### 1) 지형

조발도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어 있는 좁고 긴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섬 중앙부를 잇는 산능선을 따라 사면 경사가 매우 급하다.

계곡부를 따라 테일러스(talus) 지형이 발달하였다. 테일러스는 암괴가 급경사면을 따라 중력낙하하여 기저에 쌓인 지형으로 테일러스 단면은 초기에 직선배열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요형으로 변한다.



테일러스

테일러스는 심도가 깊을수록 기질부 함량이 증가하는 붕적층 형태이며, 테일러스 파괴면은 붕적층 내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면 아래에 위치한다. 테일러스1(길이: 80m, 폭: 20m) 테일러스2(길이: 100m, 폭: 20m) 테일러스3(길이: 245m, 폭: 25m)이 관찰된다.

조발도 인근 여수반도에 봉화산, 고봉산, 낭도산 등으로 이어지는 북서-남동방향의 산계가 발달하였으며, 낮은 산지 지형으로 인해 섬 내 하천발달이 미약하다.



출처 : 국토해양부 (2011)

#### (1) 몽돌해안(역빈)

조발도의 남쪽에 조발도길 아래 해변에 잔자갈과 큰 자갈들이 쌓여 형성된 몽돌해변(역빈)으로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으나 조간대는 짧은 해변이다. 자갈의 공급처는 주변 산지에 발달한 테일러스 균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몽돌 해변

## 2) 지질

여사만에 분포하는 도서의 인근은 중생대 백악기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암류는 고흥반도 북부와 여수반도, 나로도 등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응회암류는 경상계층 유천층군 중 화산암질암류 분출과 관련된 화산암 및 화산쇄설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에 속하며, 화성암류 및 퇴적암과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가 분포한다. 조발도는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이 주로 분포하며, 암상은 치밀, 견고하고 암회색을 띠며, 일부 화산력을 포함한다.(국토해양부, 2011)



출처 : 국토해양부 (2011)



### 3) 토양

조발리 일원의 토양층은 안산암과 안산암질 응회암의 풍화토에 기인한 잔적토가 85%, 붕적층과 충적붕적층이 13.8%를 차지하고 있다.

### 4) 기후

여자만은 우리나라 기후 구분상 남해안형에 속하는 곳으로 북적도 해류인 쿠로시오에서 갈라져 나온 쓰시마 난류와 황해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온화하여 강수가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평균 기온은 13~15°C이고, 최난월(8월) 평균기온은 약 25.6°C를 나타내며 최한월(1월) 평균기온은 약 2.7°C 정도로 가장 추운 1월에도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온대성습윤기후(Ca)의 특성을 나타낸다.

연평균 강수량은 1,460mm로 우리나라 다우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그 가운데 여름철 집중적인 강수형태로 6~8월 3개월간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50~60%를 차지한다. 장마전선과 태풍 빈도에 따라 연강수량의 편차가 큰 편이며, 1999년의 경우 2,600mm를 넘는 연강수량을 나타내기도 했다.

### 5) 주변해역 조류

여자만 평균 해수면은 약 1.94m이고, 2015년도 연평균 고조위는 2.141m, 저조위는 -2.062m이다. 그리고 연평균 해수온도는 17.7°C, 연평균 염분농도는 32.9PSU, 연간 염분농도 변화는 32.0~33.9PSU이다.

최강창조류 0.93m/sec, 최강낙조류 0.82m/sec 평면해면 181m, 대조차 297m, 소조차 108m이다. 민물의 유입량이 적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평균수심 40m 내외, 최대조차 3.9~4.2m이다.(국토해양부, 2011)

### 6) 주변환경

조발도는 말등(馬背)과 같이 평지가 없이 모두 경사지로 되어있다. 여수반도 남단의 화양면 공진곶에서 남서쪽 해상에 위치하며, 부근에 둔병도·적금도·낭도 등 여러 섬이 밀집해 있다.

## 7) 주변도서

여수와 고흥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섬의 동남부는 산지를 이루며 북쪽과 서쪽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며 해안선은 암석해안이 많다.

인근에 적금도, 둔병도, 낭도가 있다. 인근 무인도서로는 흥도, 치도, 토도가 있다. 특히 흥도의 해안노두는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을 활발히 받았다.



토도



치도



흥도

## 다. 식생과 생태

### 1) 생태자원

생태자연도상 동쪽 대부분 산지는 2등급이고, 서쪽 산지와 경작지 및 거주지는 이용과 개발가능한 3등급으로 되어 있다.

### 2) 식물 식생

#### (1) 자생식물

조발도에 자생하는 상록넓은잎수종은 구실잣밤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참식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모람 등이 출현하고 있다. 갈잎넓은잎수종은 서어나무와 소사나무가 많아서 인근의 섬들보다 극상에 가까운 모형을 나타낸다.

주로 상록넓은잎수종이 생태 우점하는 주변과 달리 갈잎넓은잎수종이 생태 우점한다. 우리나라 어디나 그렇듯이 아직도 곰솔군락이 많지만, 인근의 섬들에 비교해서 곰솔 군락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시절 작은섬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땔감으로 소나무까지 몰래몰래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는 마을주민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소나무 개체가 적을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군락지

조발도의 주요 식생은 소사나무와 서어나무가 섬 전체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서어나무는 넓은잎나무의 천이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에서 등장한다. 서어나무는 참나무 그늘에서 성장 속도가 더디게 꾸준히 자라며 힘을 키운다. 일단 참나무를 벗어나면 성장 속도가 참나무류보다 훨씬 왕성하게 자란다. 그러면서 숲의 지배자가 되어 다른 교란종이 없는 한 서어나무 숲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서어나무가 안정된 숲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온대림의 극상림이다.



서어나무



부분적으로 산정부에 아직도 곰솔군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섬의 북쪽 중앙부에 농경지와 민가들이 조성되어 있다.

휴경지에는 억새군락, 락군락, 환삼덩굴, 칙군락 등이 출현한다. 초기 휴경지는 광대나물군락, 망초군락, 여뀌군락, 환삼덩굴군락 등이 우점종인 것과 비교해볼 때 휴경지가 인근의 섬들보다 먼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경지에 나타나는 두릅나무군락은 휴경이라기 보다는 손이 덜 드는 종목으로 인공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3) 식물상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잎수종으로 곰솔, 리기다소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있다. 갈잎수종으로는 서어나무와 소사나무가 산등성이뿐만 아니라 바닷가까지 뻗어 있다.

초본류는 참취와 고사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인 발풀고사리, 광대나물, 금창초, 등대풀, 봉의꼬리, 큰개불알풀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보춘화, 큰까치수영, 며느리밥풀, 골등골나물, 십자고사리, 자란, 참나리 등도 곳곳에 분포한다.

민가 주변으로 꽃마리가 청아한 자태를 뽐내며 살짝 고개를 내밀고 수줍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새, 솔새, 쥐꼬리새풀, 환삼덩굴, 바랭이, 우슬, 잔디, 망초, 개망초, 꽃향유, 민들레, 냉이종류, 별꽃이 많이 자생한다.

맥문동, 자귀풀, 땃대이덩굴, 분홍토끼풀, 고마리, 가막사리, 여뀌, 주름조개풀, 락, 억새, 짚신나물, 파리풀 등의 초본류도 출현하고 있다.



블루베리



환삼덩굴



금잔화



냉이



방가지똥



히어리베치



송악



대나무

민간요법으로 뼈에 좋다는 골담초가 집집마다 노랗게 담벼락을 장식한다. 특히 좁은 담벼락에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송악이 까만 열매를 가득 달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 골목이 매우 좁고, 담벼락이 높다보니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한 방법으로 담벼락에 송악을 심어 튼튼하게 지탱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발도에 자생하는 식물 중 천문동은 구황식물로 뿌리를 파서 삶아 먹기도 했다. 선착장 앞 마을회관 앞에는 제법 화단을 가꾸고 있어서 금잔화가 환한 주황으로 반긴다. 주렁주렁 열린 블루베리도 눈길을 끈다. 예덕나무도 예쁜 빨간 입술을 쭉 내밀며 행인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 3) 육상동물

조발도는 남도에 분포하는 생물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서파충류는 도롱뇽, 청개구리, 두꺼비,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양서류와 도마뱀, 아무르장지뱀, 누룩뱀, 쇠살모사 등 파충류가 서식 가능성이 높다.

곤충류는 뒤장잠자리, 밀잠자리, 노랑무늬먼지벌레, 남방노랑나비, 남방제비나비, 네발나비, 왕자팔랑나비, 꼬마수중다리밤나방, 남방부전나비, 넓은띠흰꼬마밤나방, 노랑다리들명나방, 노랑췌기나방, 노랑줄박각시, 대만수염나방, 독나방, 목화명나방, 무궁화잎밤나방, 물결나비, 밤색갈고리나방, 썩은밤나방, 암떡부전나비, 애기세줄나비, 어린밤나방, 작은주홍부전나비, 점흰독나방, 좁쌀무늬밤나방, 줄점불나방, 줄점팔랑나비, 흰띠명나방, 검은다리실베짚이, 긴날개여치, 넓적배허리노린재, 두점배허리노린재, 산바퀴, 애매미, 왕사마귀, 왕파리매, 청동풍뎡이, 털매미, 한국땅딸보메뚜기, 홍보라노린재 등이 서식 가능성이 높다.

조류는 왜가리, 쇠백로, 붉은배새매, 조롱이, 새매, 황조롱이, 매, 꿩, 중부리도요, 갑작도요, 꿩이갈매기, 멧비둘기, 물총새, 파랑새, 쇠딱다구리, 제비, 귀제비,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백할미새, 큰발종다리, hing새, 직박구리, 때까치, 딱새, 검은딱새, 바다직박구리, 쇠솔딱새, 큰유리새, 흰배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눈썹솔새, 산솔새, 오목눈이, 쇠박새, 진박새, 박새, 곤줄박이, 동박새, 어치, 물까치, 까치, 까마귀 등이 서식한다.

포유류는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두더지, 등줄쥐, 멧돼지, 멧밭쥐, 멧토끼, 염소, 족제비, 집쥐, 청설모 등이 분포한다.



황조롱이

#### 4) 해양생물

조발도 주변 조하대 조사결과 총 43종이 출현하였으며 자포동물 1종, 유형동물 1종, 환형동물 22종, 연체동물 5종, 절지동물 12종, 극피동물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포동물에서는 해변말미잘류, 유형동물에서는 끈벌레류, 환형동물에서는 납작백금갯지렁이, 작은사슴갯지렁이, 중국부채발갯지렁이, 황금더덕갯지렁이, 황금비늘갯지렁이류, 치료리미갯지렁이, 버들갯지렁이, 짧은가시송곳갯지렁이, 긴자락송곳갯지렁이, 양손갯지렁이, 버들갯지렁이류, 가는버들갯지렁이류, 은갯지렁이, 얼굴갯지렁이류1, 벌거숭이비늘갯지렁이류, 깃더덕갯지렁이, 사천왕갯지렁이, 얼굴갯지렁이류2, 얼굴갯지렁이류3, 투구갯지렁이, 큰모래고랑비늘갯지렁이, 오투기갯지렁이가 출현하였으며, 연체동물에서는 새조개류, 붉은줄접시조개, 살조개, 야기반투명조개, 갯달팽이고동류, 절지동물에서는 딱충새우류, 납작동계,



꼬마딱총새우, 단각류, 옆새우류, 무딘이빨게, 여섯발게류, 털예보옆새우류, 멜리타옆새우류, 털다리게붙이, 옆길게, 장님진흙살이게, 극피동물에서는 거미불가사리류, 가시땃해삼이 출현하였다.

해조류는 조간대에서 가시파래, 잎파래, 구멍갈파래, 꼬시래기, 지층이, 김, 불등가사리, 풀가사리, 미역, 갯생이모자반, 툫 등이 주로 관찰되었다.

해초류는 잘피라고 불리는 거머리말이 선착장 앞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꼬시래기 / 거머리말의 분포 / 기타 해초류 (시계 방향)

## 5) 기타생태자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공유수면이나 인접구간 행위 제한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여수시는 현재 육지부 39.8km<sup>2</sup>, 해수면 372.5km<sup>2</sup>로 전체 412.3km<sup>2</sup>가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여자만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 2. 역사와 문화

### 가. 연혁

삼국시대의 조발도는 백제에 편입되어 삼평군 예하의 돌산현에 속한 섬이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가야국이 남원과 섬진강 하류지방에 진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가야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여수지역은 여수반도가 상다리현, 도서지역이 하다리현이었다. 따라서 조발도 역시 하다리현에 속하였다.

백제는 538년 수도를 사비성으로 옮기고, 전국을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5방을 두었다. 방에는 방성(方城)을 설치하고, 여러 크고 작은 성을 군 혹은 현으로 통제하여 지배하였다. 남방에 속하였던 순천·여수·광양지방에는 삼평군(歙平郡)이 자리잡고 있었다. 삼평군에는 원촌(猿村), 마로(馬老), 돌산(突山) 등 3현을 속현으로 두고 있었다. 원촌현은 여수반도 일원이며, 돌산현은 돌산도를 비롯한 인근의 섬을 그 영역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여수지방에 처음으로 원촌과 돌산이라는 이름의 군현이 설치되어 조발도 역시 돌산현에 속하게 되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 전남지방은 무주가 관할했으며, 순천, 여수지방의 삼평군이 승평군으로 바뀌고 그 속현이었던 원촌, 마로, 돌산현은 각각 해읍, 희양, 여산현으로 변경되었다. 통일신라 시기 여수반도는 해읍현, 조발도가 포함된 도서에는 여산현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의 여수는 해읍현이 여수현으로 개칭되고 돌산과 그 인근 섬을 관할하던 여산현이 백제시기의 돌산현이란 이름을 되찾았다.

조선시대의 여수는 군현이 폐지되고 여수지역에는 현이 설치되지 못하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군진지가 설치된다. 조발도는 돌산포만호진의 통제하에 있다가 종종 때 돌산포만호진이 혁파되고, 방답첨사진이 설치됨에 따라 고종32년(1895) 전라좌수영이 혁파될 때까지 전라좌수영의 통제를 받았다.

1896년(고종 33) 2월 3일 칙령 제13호에 의하여 돌산군, 완도군, 지도군의 3개 도서군이 설치되어 돌산군의 초대 군수로 조동훈이 부임하였다. 이때 화정면은 화개면과 옥정면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었는데 조발도는 옥정면에 속하였다. 당시 화개면의 면 소재지는 개도화산이었고 옥정면 소재지는 적금도였다.

돌산군은 1914년 3월 1일 18년 만에 폐군되고 여수군으로 통합되면서 화개면과 옥정면도 합면이 되어 화정면이 되어 조발도 역시 화정면 소속이 되었다.

2020년 2월 화양면-조발도-둔병도-낭도-적금도 연륙·연도교가 연결되었다.

사서에 나타난 둔병도의 명칭

사서명	비변사인방안지도(1745~1760)	호구총수(1789)	대동여지도(1861)	순천부지도(1872)
명칭	早發島	早發島	早發島	早發島



호남연해형편도



대동여지도

나. 마을유래

조선 영·정조시대에 제작된 호남연해형편도나 호구총수의 기록에는 사람이 거주하는(人居) 섬으로 조발도(早發島)라고 기록하였으며, 이후 지도에는 모두 조발도로 기록하고 있다.

법정리 조발리(早發里)에 속하는 마을이다. 마을 형세가 말 등처럼 생겨 평지도 없고 높은 산도 없으며, 지형이 모두 경사지로 되어있어 이웃주민들 간에는 뼈뿔이 동네라고 부르기도 하며, 해가 뜨면 섬 전체를 일찍 밝게 비추어 준다고 해서 ‘일찍 조(早)’자 ‘쏟 발(發)’자를 써 조발리라고 부른다.



임진왜란 당시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순흥안씨(純興安氏)가 난을 피하기 위해 처음 입도하여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 후 밀양박씨(密陽朴氏), 김해김씨(金海金氏), 경주이씨(慶州李氏), 김녕김씨(金寧金氏) 순으로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처음 입도한 순흥안씨 후손은 현재 살고 있지 않다.

##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 1) 조발도요망 16)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 38번지 일원의 북위 34° 38′ 6.16″ 동경 127° 33′ 38.29″ 해발 171.2m인 상산(上山) 정상부에 위치한다. 조발도는 입지상 여자만 초입의 관문에 해당하는 해중에 위치한다.

고지도인 『조선 후기 지방지도』의 「순천부지도(順天府地圖)」에는 해중의 조발도(早發島) 산사면에 황색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순천고돌산진지도(順天古突山鎭地圖)」에는 해중의 조발도 산정부에 초가(草家)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요망이 위치한 산을 주민들은 ‘봉화산’ 이라고도 부르기도 있으며, 마을 서남쪽 약 0.5km 지점에 임진왜란 당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망재’가 있다. 산 정상부에는 원형의 석축의 형태로 동쪽을 제외한 3면의 석축이 온전한데 할석허튼층쌓기로 상부는 들어쌓기를 하였다. 동쪽 요망의 석축은 상부까지 허물어져 있다. 요망 상부의 연소 실은 뚜렷하지 않다. 규모는 높이가 동쪽 0.9m, 서쪽 1.0m, 남쪽 1.1m, 북쪽 1.3m이며, 상부의 지름은 동서 3.1m, 남북 2.4m, 하부 둘레 10.6m이다. 산정에서는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한데 잡목으로 시야가 제한적이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둔병요망 2.1km, 낭도요망 2.6km, 백야곶봉수 5.1km, 고흥 우미산요망 8.5km, 제도요망 9.4km, 백야도요망 7.2km, 상화도요망 5.3km, 하화도요망 7.1km이다.

조발도 전망공원에서 도로를 따라가면 산정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16)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봉수·요망유적) 기초학술조사』, 2019



순천고돌산진지도 조발도요망 / 요망이 위치한 봉화산 / 조발도 요망 / 조발도 요망 조사 (시계 방향)

## 라. 조발도의 어제와 오늘

### 1) 우편선 마패호

조발도를 비롯한 화정면 섬들에 편지를 전달하면서 구급선 역할을 하기도 했던 우편선 ‘마패호’를 운행했는데 1968년 12월, 전남 여수 우체국 소속 해상이동우체국으로 첫 취항하여 여수 근해 조발도, 둔병도, 낭도, 두라도 등 17개 섬주민들에게 이틀에 한번씩 우편을 전해주었는데 취항 14년 6개월 만인 1983년 6월 30일 마지막 항차를 운행한 뒤 7월 20일 폐선됐다.

마패호는 17개 섬을 두 코스로 나누어 월,수,금요일에는 조발, 둔병, 적금, 낭도, 사도, 초도, 상화도, 하화도 등 8개 섬을 잇는 67.6km를 운항했고, 화,목,토,일요일에는 금죽도, 제도, 자봉도, 월호도, 대소두라도, 나발도, 대소횡간도 등 9개 섬 59.7km코스를 운항했다.



조발도 여산초등학교 교직원 20명  
 조발도 여산초등학교 교직원 20명

**17개 섬을 며칠 전처럼 - 救急船의 합하기도**

**말뚝배기 어룡선... 1. 생의 불꽃 불어넣는 열정**

**14년만의 만남! 救急船 마패호**

**조발도의 숨겨진 보물 창고**

조발도 여산초등학교 교직원 20명  
 조발도 여산초등학교 교직원 20명

마패호 기사

**낙도 어린이 20명  
 金秀姬, 서울초청**



◇---가수  
 金秀姬가22  
 일 전남廉  
 川군華井면  
 부發섬의연  
 산국민학교  
 조발분교생  
 20명을 서  
 울로 초청, 신문사·방송국 견  
 학과 서울대공원, 고궁등의 관  
 광을 시킬 계획이라고. 조발분  
 교는 교사 2명에 전교생이 20  
 명의 낙도분교인데 秀양은 서  
 울나들이가 소원이라는 섬개구  
 리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4백  
 만원의 경비를 들여 2박3일에  
 정의 서울관광을 시켜주기로했  
 다는것.

초청 기사

2) 가수 김수희씨의 조발도 어린이 서울초청

1984년 10월 22일 가수 김수희가 조발도의 여산초등학교 조발분교생 20명을 서울로 초청, 신문사, 방송국 견학과 서울대 공원, 고궁 등의 관광을 시켜줬다. 당시 조발분교는 교사 2명과 전교생이 20명의 학교였는데 김수희씨는 서울나들이가 소원이라는 섬개구리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4백만 원의 경비를 들여 2박 3일 동안 서울관광을 시켜주었다.



### 3. 섬 생활의 변천

#### 가. 조발도의 생업

여자만 주변의 섬들은 간만의 차는 심하지만, 수심이 얕아 양질의 갯벌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을 농업과 병행하는 가구가 대부분이다. 조발도는 섬이 전체적으로 평지가 없고, 경사진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어 내리막을 걸어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걷다 보면 미끄러지기 일쑤고, 골목 또한 다른 지역보다 매우 작고 비좁다.

요즘 어느 농촌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트랙터나 다른 농기계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소도 지나다니기 어려운 골목이라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워서 대부분 지계를 지는 등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경사진 길



좁은 골목길



지계

마을 할머니들의 손가락과 발가락 10개씩이 하나도 제대로 반듯한 것이 없을 정도다. 손, 발가락이 모두 젓가락을 맘대로 휘어 놓은 듯 뺨뺨뺨해서 이 마을의 별칭이 연상될 정도이다. 그만큼 농사짓는 환경이 척박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전 우리네 가정에 소가 큰 재산이던 시절에도 소를 키우는 집이 많지 않았다. 소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짐을 싣는 등 농사를 짓기 위해서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팔아서 자식 대학등록금이 되기도 했다. 조발도에서는 이종모씨가 마지막까지 소를 키웠다고 하는데 너무 길이 좁아서 소가 지나다니기도 여의칠 못했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경운기나 트랙터도 없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지금은 운전할 사람이 없다.

## 1) 농축산업

### (1) 밭농사

조발도는 해가 일찍 떠서 조발도라고 한다. 임금님이 계시는 곳을 “조정”이라고 부른 이 유와 같다. 하지만 조발도라는 이름보다도 “뺨뿔이섬”이라는 별칭이 더 친근하다.

별칭은 섬의 지형이 말 잔등처럼 생겨 평지가 없어 비스듬하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지형이 이렇다 보니 밭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 되지 않은 밭들도 모두 경사면에 자리해서 인근의 둔병도나 낭도처럼 농사를 넉넉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되었다.

농경지가 주로 섬의 북쪽에 분포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이웃 섬보다 땅도 좁고 경사져서 농사짓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그만 땅이라도 일궈서 억척스럽게 농사를 지었다.

조발도의 주요 농작물은 보리와 고구마였다. 일찍이 수확량이 많은 맥주보리로 종자를 바꾸면서 보리를 100가마니씩 하는 집도 있었다.

여름에는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 고구마가 주식이던 시절 겨울에 식구들이 먹을 최소한의 양만 방에 뒤주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자투리라도 모두 절간해서(얇게 썰어서 별에 말림) 수매를 했다. 절간을 300만 원씩 하는 집도 있었는데 경사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하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했다.

부 작물로 재배하던 약초 황금이 제법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요즘은 소를 키우지 않아 밭을 갈기가 어려워 황금을 재배할 수도 없다. 그 외에 콩, 마늘, 무도 심었다.



매우 경사진 밭



콩을 고르는 할머니 (2009)



고사리를 키우고 있는 밭

지금은 인근의 둔병도가 겨울에도 방풍을 심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조밭도는 겨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 수밖에 없다. 여름에도 밭농사를 거의 하지 않는데,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멧돼지가 모두 파버려서 요즘은 고구마도 못 심고 콩이나 무, 마늘만 심는다. 가끔 조를 심어놓은 밭을 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밭에다 고사리 종근을 심어 고사리를 채취하기도 한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마을을 지키기 어려웠던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없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거나, 텃밭에 간단한 먹거리만 재배하면서 생활한다.

## (2) 논농사

조밭도는 본동과 작은마을, 2개의 마을로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작은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8가구 정도 되던 마을 사람들이 본동으로 이주하거나, 멀리 떠나 작은마을은 썩과 폐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밭도에서 20여 년간 이장을 맡고 있는 이종모씨도 작은마을 출신으로 본동으로 이사온지 40여 년이 되었다. 이 작은마을에는 한때 천여 평의 논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인근의 다른 섬에 비해 논농사가 많은 편이었다.

논농사로는 벼를 심어서 쌀을 생산했다. 인근의 둔병도가 논농사가 없어서 쌀 대신 조를 밥에 얹어 먹은 것과 달리 그래도 쌀밥을 먹을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작은마을 집터



## 2) 어업

조발도는 여자만에 속하지만, 주변의 섬들과 다르게 화양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다. 빠른 조류로 인해 해안선이 단조로워 넓은 갯벌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인근의 둔병도나 적금도 같이 바지락이나 꼬막 등 패류양식이 활발할 수가 없었다.

갯벌 어종보다는 흐르는 물속에서 직접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이 풍부하고 다양하였다. 약간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멸치어장이 형성되어 멸치 낚장망을 하는 집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다.

어업도 큰배를 가지고 하는 양식업보다는 작은 통통배를 가지고 하는 통발업을 주로 생업으로 삼았다. 겨울에는 김양식을 주로 할 수 있었다. 김양식이 끝나는 시기부터는 1년 내내 계통발을 했다. 계통발 하는 사이사이 잠깐 문어철이 오면 문어 통발을 하기도 했다.



멸치잡이배 / 마을 앞 양식장 / 장어통발 / 계통발 / 멸치잡이 (시계 방향)



오랫동안 물고기가 잘 잡히고, 육지보다 땅값도 비싸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바다가 서서히 오염되고, 작은 물고기 새끼까지 남획되어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갔다. 더구나 어업은 농업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고갈된 어족자원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니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점차 섬을 떠나 버렸다. 젊은이들이 떠난 섬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거의 모든 논밭을 묵히게 되었고, 어업도 폐업이 되다시피하고 있다. 2001년에는 조발도 어장의 일정해역을 지정해, 입어료를 내고 수중사냥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어장을 만들기도 했다.

사람들이 섬을 떠나면서 어업 활동이 매우 감소하면서 어업이 중단된 바다가 살아나면서 선착장 바로 밖으로 잘피라고 불리는 거머리말이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다. 거머리말은 바다 식물 가운데 유일하게 뿌리로 영양을 흡수하고 햇볕을 받아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이다.



어업도구가 널려있는 담벼락



조발유어장 안내문



잘피류 (거머리말)

잘피는 바다에 사는 해조류와는 다른 바다 풀이다. 잎과 땅속줄기관 다발 조직이 잘 발달해 있으며 군락을 이루고 자란다. 거머리말이 군락을 이루고 사는 지역은 해양생물의 산란 및 보육장 구실을 한다. 특히, 부영양 물질을 걸러내어 연안 환경을 정화하고 적조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피가 자라는 것은 바다가 되살아나면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뜻이다.

## 나. 조발도의 생활문화공간

1994년 통계에 따르면 조발도에는 13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 조그마한 섬에서 130여 명이 “무엇을 해먹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섬의 경사가 심하고, 인구 밀도는 높았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장남과 같이 살았고, 둘째부터는 결혼하면 타지로 나가기보다는 마을 다른 집에 셋방을 얻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러다 보니 건물 수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마을이었다.

현재 조발도에 실제 기거하며 사는 사람은 5명 정도이다. 주민등록에는 훨씬 많이 등재되어 있지만, 도회지에서 살다가 휴일에 왔다 갔다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다. 마을 초입에 있는 교회 옆으로 이종모 이장 부부가 살고 있고, 조창애, 배다엽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다. 마을 사람이라야 뻘해서 이장 집에서 두 할머니와 모여서 자주 밥도 먹고 얘기도 한다. 마실도 이장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마을회관은 바닷가에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마을회관은 거의 비워두고 이장 집을 더 많이 이용한다.

20여 년 마을 이장을 했다는 이종모씨 부인은 손님 치르는데 선수가 되었다. 손님을 치르느라 허리가 휘어서 복대를 차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도 없다고 한다. 조사를 위해 방문한 날에도 마을 사람들과 상수도 공사와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장집에 모여서 팔죽을 나눠 먹고 있었다.



이장덕에 모인 주민

마을에서 지붕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해진 집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거나, 주말에라도 사람이 들르는 집이다. 벽이나 지붕이 회색빛으로 손질이 되지 않은 집들은 모두 폐가인데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기거하는 집보다 폐가가 더 많다.



조발마을 전경 (지붕색이 칠해진 집에만 사람이 거주)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



지붕에 색이 칠해진 민가



담장에 벽화가 그려진 민가

섬이 경사지고 땅이 좁은 관계로 이 마을의 골목은 다른 마을의 골목보다 좁고 아기자기하면서도 경사가 심하다. 이런 곳에 130여 명이 살다보니 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다행히 육지와 인접해 있어서 다른 섬들보다 산짐승들이 많아서 산짐승 사냥이 발달하였다.

어느 섬이나 마찬가지로 물이 풍족하지 못하다. 조발도 역시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물이 귀해서 비가 오면 건물 처마의 물을 받아서 빨래와 허드렛물을 쓴다. 낙숫물을 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공동우물



우물



지붕의 우수를 모으기 위해 집수정과 호수로 연결



가정집 집수정

처마마다 낙숫물을 받는 시설이 되어있고, 처마에서 연결된 호스가 마당에 설치된 커다란 탱크 시설로 연결되어 있다. 한 방울의 빗물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활용한 섬사람들의 애환이 보이는 시설이다.



길 확장공사

마을 뒤 능선에 주차장이 있는 곳을 ‘풀밭’이라고 하는데 이곳 주변에 샘이 하나 있다. 이종모 이장과 조창애 할머니 집 아래 위치한 샘이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다. 교회 앞에서 바닷가로 가로지르는 길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길 옆에 있는 샘하나를 메웠다고 한다.

이종모 이장 집 벽에는 아직도 김 틀과 두부 틀이 걸려 있다. 명절마다 두부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물고추를 가는 기계도 옛날에는 마을주민들이 다 같이 썼으나, 지금은 물고추를 갈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늦가을부터는 김 밭장 엮을 띠를 뽑으러 군산 등으로 갔다. 군산은 주변 적금도 사람들이 해망동으로 이주하면서 조밭도 사람들도 지인을 찾아 많이 갔던 곳이다. 겨울엔 뽑아가지고 온 띠를 가지고 밭장을 엮었다. 멍석을 짜고 바구니를 짜서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다.

당제를 지낼 땐 마을사람들이 상시 먹는 물을 쓰지는 않았다. 마을주민들이 평소 잘 쓰지 않으면서도 수질이 깨끗한 작은마을 앞에 있는 물을 사용하였다.



이장집 김틀과 두부틀

조창애 할머니<sup>17)</sup>의 인터뷰이다.

“물데라묵고 산 넘어 다 다님시롱 물을 길어다 묵고~ 나무가 없어서 돌옷을 다 걷어다가 불 땀어. 호맹이를 갖고 돌옷을 껴고. 아르~가 아르~가. 전에 시집와서는 이런 나무 하나도 없어.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질었는데~~ 그때는 나무도 없고 해서 내성나무<sup>18)</sup> 내성나무 비다가 떼고, 호맹이로 팠당께.

푸나무 빌 것도 없어서 호맹이로 파고, 가리도 없승께 손으로 줍고 다녔어. 없승께 갈퀴도 필요 없이 떨어진 것 한나씩 주갓고 왔당께. 그래갓고 한까끼 허먼 속에 솔갱이 너갓고 대충 한짐 만들어~~. 청솔가지 꺾어 갓고 까끔 임자한테 들리면 죽어. 산주인은 나무 허지 말라고 옥을 퍼대고~~ 보도못헌 시상을 살었네.

아르~갈~가.

해우 갈라네,

밭 갈라네.

애기 불라네.

씨엄새 씨앗새 밥해줄 라네.

살고 난 시상을 생각하면 아르~가 아르~가 요새같이 존 세상

길이 나고 난께 그 시상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이렇게 존 시상이 난디. 이렇게 다리가 아퍼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17) 조창애-1940년생, 화양면 가정리(함안조씨)에서 시집왔다.

18) 정확한 내용은 못 알아들겠다. 어감으로 봐서 뽕감으로 쓸 만한 마른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라는 뜻인 듯하다.

19) 배다엽-1942년생, 둔병도에서 시집옴

**배다엽<sup>1)</sup>할머니의 인터뷰.**

“나도 여수 살다가 들어왔네. (논, 밭은) 다 무카불고 냈됐다. 둔병섬은 바쁘다고 들어오지 말라고해서 못 들어갔네.

힘든지 멀라 그런 지서리를 해. 죽으면 이고지고 갈라고.

다 쓸거있어. 멀라고 그렇게 농사를 진당가. 나가 하녕 그 소리내.

나가 시집을 때 흐건 코고무신 그것을 파랑신, 혼신, 색색으로 다섯컬리를 사왔는디 밭에 한번 가면 밭이 커서 신을 풀어뿔고 한번 가면 풀어뿔고 해서 하~녕 사람들이 밭이 커서 그런다고 허네.(섬이 빼뿔어서 그러는데) 뿔갈맞은 옛날이야기 다허네.

이렇게 존 시상에 돈이 귀헌가. 목을 것이 없는가. 없는 게 없는디 죽을 일만 남았네. 죽을 때 닝가 뿔면 큰일이여”



공동집수정

지금은 풀섬바 옆 밭가운데 큰 물탱크가 있다. 마을의 공동 집수정이다. 가장골 가는 길목에도 마을의 공동 저수탱크가 있다. 뒷산 옛 성터에서 식수를 받아서 큰 동네로 끌어와 식수를 공급해준다.

요즘은 특별히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무료할 때 뒷산에 지천으로 나는 나무를 뜯어다 말린다. 4월~5월은 한창 고사리와 취나물이 나는 때이다.

옛날에는 누구나 쉽게 채취해버려서 씨가 마른 줄 알았던 고사리와 취나물, 쑥 등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 한 번 나서면 한나절에 한 망은 거뜬히 채취해올 수 있다. 고사리나 취나물은 삶아 말려서 설이나 추석에 나물로 이용한다.

마을회관 뒷마당에 있는 아궁이에 높이 솟은 굴뚝이 이채롭다. 연탄이나 석유보일러가 아닌 나무 아궁이를 사용하는데 나무는 옛날같이 산에서 힘들게 해오지 않고, 바닷가에 끝없이 밀려든 김발용 대나무 등을 건져서 말려 사용한다. 땀감으로 쓸 대나무가 바닷가에 가득 쌓여 있다.



굴뚝이 높은 아궁이

육지와 연결되고 나서 조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마을안길을 넓히고, 돌레길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돌레길이라도 걷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 다. 선박

조발도의. 조발도의 첫 여객선은 1961년에 취항한 여진호가 처음인 것으로 보이며, 70년대에는 1971년 3월 9일에 취항한 남국호가 운항하였다. 1980년대에는 1989년에 취항한 뉴시프린스호가 운항하였다. 이후 1999년 초에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는 화정면 일대 여객선의 항로가 일부 변경되면서 여수시 화정면 별가에서 출항하는 우리바다호가 취항하였으나, 2020년 2월 대교들이 완전개통되면서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었다.

어선은 1997년 말 기준으로 5ton 미만 동력선 27척이 등록되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5ton 이상 동력선 1척과 5ton 미만 동력선 7척으로 총 8척이 등록되어 있어 1997년과 비교해 19척이 감척되어 70.3%의 감척 비율을 보였다. 이는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인구 감소와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지속적인 노후 어선 감척 정책의 결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선어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섬에서의 해양자원 활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발도 어선 1



조발도 어선 2



우리바다호

## 라. 조발도 주민들의 생애사

### 조발분교와 함께 한 박복순씨의 30년

2020년 화정면 조발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5세대 9명에 불과하다. 연륙교로 다리가 건설된 뒤 마을 뒤편 고개마루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

마을 중앙으로 지그재그 만들어진 골목길을 따라서 내려가 선창 가까이에 박복재씨 집이 있다. 옛날 초가집을 70년대 새마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개조한 슬레이트집으로 대부분의 오래된 마을의 슬레이트집들은 마찬가지다.

1942년 임오년 말띠로 3남 4녀의 막내로 조발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가장 먼저 태어난 큰형과는 나이 차가 17살이나 되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마을에 군인들이 배를 타고 총을 쏘며 들어온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가정집의 울타리를 수숫대로 엮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군인들의 총소리에 놀라서 울타리 아래에 숨어서 몸을 떨었다고 한다. 뒤에 알고 보니 여순사건이 발발하면서 여수 14연대에 근무하다 집으로 도망친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고향 쪽으로 실어준 사람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붙잡아 두들겨 뺐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마을에는 좌익이라 하여 연좌제에 걸려서 취직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1898년생으로 옥정조합에서 일했는데 당시 조합에 근무하면 매월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1942년 설을 쇠고 초엿새 되는 날 조발도에서 여수로 나가기 위해 여객선에 옮겨 타던 중 종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을 쇠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과 짐이 뒤엎키면서 짐이 한쪽으로 쏠리자 종선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박복순씨는 그해 오월 초하루에 태어났으니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 유복자이다. 이후 집안 형편이 나빠졌는데 뒷날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아이고 어찌 살까? 그래도 우리 막내가 있어서 영감 삼고 자식 삼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집에서 인터뷰 중인 박복순씨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어선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박복순씨

해방을 겪고 한국전쟁 시기에 조발도에 있던 국민학교를 다닌 후에 섬에서 계속 살았다. 당시 조발도에는 큰 동네와 섬 동남쪽에 있었던 ‘따순기미’라고 부르던 작은마을까지 60여 호 정도의 집들이 있었다. 박복순씨와 국민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은 여자 4명, 남자 9명이었다. 당시에는 학교에 다니려면 기성회비라는 납부금을 냈어야 했는데 기성회비를 내지 못하면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다. 납부금 때문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졸업생은 13명 중에서 10명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조발국민학교는 주민이 살던 집을 사들여 개조한 건물이었다. 두 칸 교실에 전교생이라야 2~30여 명이 전부였다.

1950년대 말, 조발도 사람들은 톳을 많이 채취하였는데 섬 주변에서 지천으로 자란 톳이 비싼 값에 거래되면서 섬 주민의 주 소득원이 되었다. 돈벌이 되는 일이 고향 섬에 있었기 때문에 20대가 되도록 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단다.

1962년 여수 진남관에 임시로 설치되었던 신체검사장에서 신체등급 갑종 판정을 받고 1963년 6월 6일에 광주 31사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였다. 당시에는 마을에서 군대에 간다고 하면 군대 가기 전날 마을의 친구와 또래가 함께 모여 거창한 송별연을 펼치고, 입대했다. 군대 가는 날 여객선을 타면 마을주민이 모두 선창에 나와서 손을 흔들었고, 여객선도 마을 앞바다를 두어 바퀴 선회를 한 다음에 이별을 고하는 풍습이 있었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곳은 경기도 포천 부근의 자작리라는 곳이었다.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제대를 하고, 6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전역하였다.

전역 후 돌아온 조발도에는 섬 남쪽 신추 해변가에 7~8개의 멸치막이 있어서 성업 중이었다. 전 면장이었던 김두홍씨 멸치잡이 배에 월 3만 원 월급을 받고 일하였는데 일을 잘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월급이 많았다고 한다. 멸치잡이에 이어서 오징어잡이 배도 타고 하면서 1년을 보내고, 27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있던 낭도국민학교 조발분교에 기능직 일자리가 생겼다. 박복순씨와 다른 한 청년이 후보가 되었는데 학교 기성회장이었던 김종기씨의 주선 덕에 복순씨가 선정되었다. 군대를 다녀와서 2호봉까지 있어 주는 좋은 조건이었다. 주 업무는 학교를 관리하는 일과 행정 관련 서류를 교육청과 낭도 본교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에 학교에서 일하기 전 결혼하였다. 친척의 중매로 규포마을에 살던 김말레 여사와 맺어져 처음에는 큰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당시 형제자매가 많은 집들은 세 동서가 함께 사는 경우도 있었다. 3년쯤 지난 서른 살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박씨는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과정을 조발도에서 마쳤지만, 중학교 다니는 일이 힘들었다. 아침 일찍 통학선을 타고 백야도까지 가서 화정중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셋째는 초등학교부터 여수시내의 진남초로 전학시켰고, 넷째 막내딸은 중앙초등학교를 다니게 했다.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커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발분교는 1996년 2월에 폐교되었다. 학교의 마지막을 지킨 교사는 김성환 선생님이었고, 학생은 졸업생 2명이었다. 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아직 정년이 조금 남은 시기라서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에 있는 소라서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일하다가 1999년에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했다.



폐허로 변한 조발분교

퇴직 후 곧바로 작은 어선을 구입했다. 당시 조발도에서 둔병도로 시집간 마을사람이 정보를 주었는데 둔병도에서 더 큰 배를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배를 700만 원에 살 수 있었다.

배를 산 덕분에 시간이 나면 낚시를 할 수 있고,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이목리 신기마을에 논계를 들어 사 놓은 논을 가꾸기도 하는데 옛날 조발도 마을에 논이 부족해서 논계를 조직해 논을 샀다고 한다. 마을주민이 사망하면 초상을 치르기 위해 들었던 옛계, 죽계도 있었고 후손에게 대물림한다는 의미의 물림계도 있었다고 한다.

## 4. 조발도의 민속문화

### 가. 조발도의 지명유래

조발도는 조선 영·정조시대에 제작된 호남연해형편도나 호구총수의 기록에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 조발도(早發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발리(早發里)에 속하는 마을이다. 마을 형세가 말 등처럼 생겨 평지도 없고 높은 산도 없으며, 지형이 모두 경사지로 되어있어 이웃주민들 간에는 빼돌이 동네라고 부르기도 하며, 해가 뜨면 섬 전체를 일찍 밝게 비추어 준다고 해서 '일찍 조(早)'자 '쏟 발(發)'자를 써 조발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1990년대 발간된 마을유래지에 전해온다.



조발도의 지명지도

비탈형의 경사지 때문에 불려왔던 ‘삐툴이’란 마을 이름은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지명이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삐툴이 마을 아낙들은 비탈진 삐툴이 밭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다 보니 여성의 중요한 부분도 삐들어졌다 더라” 고 놀려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 앞끝(동구미)<마을> : 조발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아랫물 또는 앞끝이라고 한다.
- 옷몰(마을) : 조발마을 중심부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 작은동네(마을) : 조발마을회관에서 서남쪽 약 1.2km 지점에 있었던 작은마을로 조발마을로 모두 이사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다.
- 샘끼미<고개> : 조발마을회관 서북쪽 약 300m 지점에 있는 고개로 샘이 있었다고 한다.
- 마사지<고개> : 조발마을 북동쪽 산의 정상으로 요망대가 있었으며, 마사지에 어원에 대해 주민들은 망을 보던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망제<고개> : 조발마을회관 서남쪽 약 1.8km 지점에 있는 고개로 임진왜란 때 적의 동태를 살피던 요망이 있던 곳이다.
- 가장골<골> : 조발마을회관 동남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로 옛날 시신을 임시 매장하던 곳이다. 연륙연도교 개통 이후 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 중이다.
- 물랑곳<골> : 조발마을회관 동남쪽 약 3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을 통해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 당산나무<나무> : 조발마을의 뒷산에 있는 나무로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제를 모시고 있다.



가장골



가장골로 연결되는 도로공사



당산





당집



가마등



첫등

- 당집<당> : 조발마을 뒷산에 있는 당으로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 풀섶바<능선> : 조발마을 뒤편에 있는 능선으로 풀이나 잣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들머리<들> : 조발마을 서북쪽에 있는 곳으로 들로 들어가는 첫머리에 있다고 한다.
- 목넘어<들> : 조발마을 서북쪽 있는 곳으로 들로 가는 목에 있다고 한다.
- 솔머리밭<들> : 조발마을회관에서 서남쪽으로 약 500m 지점 솔머리 근처에 있는 들이다.
- 샘끼미밭<들> : 조발마을 서북쪽 약 500m 지점 샘끼미에 있는 들이다.
- 가마등<등> : 조발마을 동남쪽 약 600m 지점에 있는 등으로 가마와 같이 생겼다고 한다.
- 따순기미<등> : 조발마을회관 동남쪽 약 1.3km에 위치한 등으로 겨울에 따뜻하다. 작은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 첫등<등> : 조발마을 동남쪽 약 1.4km 지점 따순기미 앞에 있는 등으로 들어가는 첫머리에 있다.
- 큰끝<모퉁이> : 조발마을 동남쪽 끝에 위치한 산모퉁이의 휘어 돌아간 곳이다.
- 고바<벼랑> : 조발마을 뒤편 서북쪽에 있는 벼랑으로 경사가 매우 급해 일본어로 ‘고바’라고 한다.
- 솔머리<부리> : 조발마을 서북쪽에 있는 해안으로 솔개의 머리 모양처럼 뽕족 튀어나왔다고 한다.



고바(아래쪽)와 들머리(위쪽)



신추



애대기미섬

- 갈미봉<산> : 조발마을의 서남쪽 공동묘지 앞산으로 산의 모양이 갈매기처럼 생겼다고 한다.
- 안산<산> : 조발마을회관 동남쪽 약 800m 지점에 있는 산으로 마을 앞산이다.
- 삼여<여> : 조발마을회관 동북쪽 약 1km 해상에 있는 3개의 여이다.
- 신추<해안> : 조발도 남쪽 해안에 물살이 빠른 해안이다.
- 조발수도<해협> : 조발도와 화양면 공진 사이의 물길이다.
- 토도<섬> : 화양면과 조발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섬모양이 토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부른다.

## 나. 조발도의 설화와 민요

### 1) 조발도 산호초와 뱃사공 전설<sup>20)</sup>

조발도 남단에서 약간 떨어진 해저에서 상담섬까지 아름다운 산호가 깔려 있는데 어부 홍씨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 고기를 잡으러 아버지를 따라 다녔다. 고기는 대개 연승업(주낙)으로 가오리, 썸뱅이, 도다리, 민어, 농어, 장어 등을 잡아 잘 건조하여 순천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하였다. 홍씨의 아버지가 별세하고, 모두 홍씨를 선장이라 불렀다. 홍씨는 매우 성실하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식물 곤충까지도 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고기를 잡을 때마다 산호초가 주낙에 걸려 올라오면 산호를 다시 물에 던져 주었다.

홍씨가 평상시와 같이 고기를 건조하여 조발도에서 선원 2명과 같이 순천장으로 출발하였다. 점심때가 되자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지더니 노가 부러지고, 파도가 배를 덮쳐 선원 2명은 널조각을 잡아타고 밀려갔다. 홍씨는 끝까지 배에서 버티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20) 화정면지편찬위원회, 『화정면지』(유일인쇄소, 2000)

의식을 잃고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 산호초 위에 누워져 있었다. 선원들은 판자를 잡고 상처투성이로 파도가 밀어닥칠 때 닭섬으로 뛰어올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파선당한 뱃조각이 밀려왔는데 홍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선원들은 기다리다 못해 부싯돌을 갈아 불을 피웠다. 그러다 지쳐서 산으로 올라가 칠퍼리를 나누어 먹으면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알았다. 홍선장의 자취는 찾을 수 없었다. 해변을 돌아본 선원들은 홍선장이 죽어 시체로 변해 다른 곳으로 밀려갔다고 생각했다.

한편, 물속에 잠긴 홍선장이 의식을 찾고 보니 그곳은 바로 용왕이 사는 용궁입구의 산호 꽃밭이었고, 그것을 생각한 순간 용궁으로 가던 큰 거북이가 홍선장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시간이 바쁘다고 하며 등에 태우고 나가는 동안 홍선장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거북이는 물속에서 나와 주위를 살펴보고 닭섬으로 헤엄쳐 갔다.

바닷속 산호초 위에 누워 있을 때 홍선장의 목에 누군가 와서 구슬을 걸어 주었고, 그 상태로 거북이 등에 타고 있었다. 거북이가 해변으로 와서 흔들자 홍선장은 의식을 찾았다. 그가 해변 벽으로 내려왔을 때 거북이는 저 멀리 바닷속으로 헤엄쳐갔고, 그제서야 홍 선장을 발견한 선원들은 달려와 서로 얼싸안았다. 홍선장의 목에 걸린 구슬이 저녁노을을 받아 유난히 빛났다. 그러자 홍선장은 구슬이 하도 이상해서 감정해 보기로 했고, 그 결과 300량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진주라는 것이 밝혀졌다. 선원들을 데리고 가서 팔아 똑같이 나누어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다. 조발도의 세시풍속

낭도의 세시풍속과 크게 차이가 없다.

## 라. 조발도의 신앙

### 1) 당제<sup>21)</sup>

조발도에서는 정확히 언제부터 당산제를 모셨는지 문헌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최소 300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음력 정월 보름 자시에 당산제를 지냈지만, 현재는 음력 1월 14일 오후 3시경에 제를 지낸다.

2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도서 지역 무형 문화유산 III』(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15)

상당과 하당이 있으며, 상당은 마을 서쪽 산꼭대기로 수백 년이 넘는 해송들이 우거져 있다. 당집은 벽돌로 쌓아 곁에 시멘트를 입혀 만든 한 칸 건물로, 안에는 “영신산 건신지위(靈神山 乾神之位)” “영신산 곤신지위(靈神山 坤神之位)”라 쓴 표석이 있다. 하당은 상당에서 북쪽으로 50여 미터 아래 산비탈에 있는 바위이며, 신체는 당산신이다.



상당



하당

예전에는 음력 선달 초순경에 마을에서 집안에 상을 당했다든지 출산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이혼이나 부정한 일이 없고,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 중에서 제주를 1명 선출했는데, 현재는 마을주민들이 거의 없다보니 이장이 제주를 맡아 제를 지내고 있다. 제주인 이장은 일주일 전에 상당과 하당을 비롯해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후 금줄을 친다.

과거에는 제를 모시기 일주일 전부터 제주가 출타하지 않고, 매일 목욕재계를 하며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목욕을 한다. 마을주민들도 제주와 같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며, 술주정이나 싸움을 삼가는 등의 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부정한 일을 삼가는 정도이다.

예전에는 하당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상당에서 매를 지어 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간소화하여 마을에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상당으로 올라가 제를 올린다. 먼저 향불을 피우고 진설을 한 후에 정화수 1잔을 올리고 재배하고 소지한다. 진설한 제물은 한지로 싸서 땅에 묻는다. 하당에서도 제를 올리는 데 하당에 진설한 제물도 땅에 묻어 제를 마친다.

현재는 헌식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월보름날 아침 9시경에 제주집으로 매구꾼들이 모여 매구를 치고 나와 샘굿을 친 후에 마을 앞 공지에 모여 매구를 쳤다. 제주가 제물 3상을 차려 나오는데 각 상에는 검상으로 매를 올렸다. 각 가정에서는 선영을 위하여 1~2상을 차려서 내왔다. 맨 앞에 제주가 차려온 상을 놓고 그 뒤에 각 가정에서 차려 온 상을 줄지어 놓고, 각 가정의 주부들이 가져온 술로 자기 상에 잔을 올리고 그때마다 재배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소망을 기원했다. 제주가 마지막으로 풍농, 풍어, 가축의 번식,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상당 메무덤



하당 금줄



하당 메무덤



해난사고가 없기를 기원하고 나서 잔을 올린 후 재배하고 나서 제물을 떼어 내어 물밥을 만들어 한지 위에 부어 놓고 바다를 향하여 재배하면 주부들도 각자 자기 상에서 조금씩 음식을 떼 내어 물밥을 만들고 한지 위에 부어 놓고 바다를 향해 재배했다.

조발도는 아직 당제를 지내고 있지만, 마을주민들의 수가 적고, 대부분 고령층이라 당제를 지내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종모 이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제를 계속 지낼 것이라고 한다.

영험담도 전해지는데 제를 모시기 위해 제주가 당집으로 올라가는데 소 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고 앉아서 비켜주지를 않아 당집으로 못 올라가고 일단 집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다시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어보니 한복 바지 위에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있어서 천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당집을 향해 올라가보니 소가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한다.



이종모 이장 인터뷰

## 2) 교회

조발교회는 1982년 3월 10일 김재희 강도사가 몇몇 주민들과 함께 개척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여수노회의 지원으로 1984년 11월 28일, 현위치(화정면 조발도길 23)에 교회건축을 시작하였고, 1985년 4월 15일 예배당을 준공하였다. 현재 김재용 목사가 시무중이다.



조발교회